맨시티, UCL 결승행… '잔혹사' 끊는다

홈 2차전서 레알 4대0 격파… 인터 밀란과 정상 격돌
숱한 우승 기회 놓쳐… 만수르 '트레블 꿈' 이룰 찬스

맨시티의 후뱅 디아스(왼쪽)과 존 스톤스가 경기가 끝난 뒤 환호하고 있다. EPA=연합뉴스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의 '갑부구단' 맨체스터 시티(맨시티)가 스페인의 '거함' 레알 마드리드에 대승을 거두고 첫 유럽축구연맹 챔피언스 리그(UCL) 챔피언 등극에 1승만 남겨뒀다.

맨시티는 18일(한국시간) 영국 맨체스터의 에티하드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2~23 UCL 준결승 2차전 홈경기에서 베르나르두 실바의 멀티골을 앞세워 통산 15번째 정상을 노리던 레알 마드리드에 4-0으로 크게 이겼다. 10일 원정 1차전에서 1-1로 비긴 맨시티는 1, 2차전 합계 5-1로 앞서 결승행을 이뤘다.

맨시티는 AC밀란을 합계 3-0으로 물리치고 결승에 선착한 인터 밀란(이상 이탈리아)과 다음달 11일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빅이어(UCL 우승컵의 애칭)'를 놓고 격돌한다.

맨시티는 첼시에 져 준우승에 그쳤던 2020~21시즌에 이어 2년 만에 두 번째로 결승 진출에 성공하며 'UCL 잔혹사'를 끝낼 절호의 기회를 잡았다. 맨시티는 2008년 아랍에미리트(UAE)의 왕족 만수르에 인수된 뒤 EPL에서 6차례 우승을 차지하는 등 강호로 자리매김했으나 UCL 무대에서는 좀처럼 정상에 서지 못했다.

FC바르셀로나(스페인)에서 UCL 우승을 2차례나 지휘한 펩 과르디올라 감독을 2016년 사령탑으로 앉힌 뒤에도 마찬가지였다. 더구나 UCL에서 유난히 강한 모습을 보이는 레알 마드리드만 만나면 더 작아졌다. 준결승에서 레알 마드리드에 무릎을 꿇은 경험만 2차례였다.

지난해의 경우 4강전에서 합계 5-3, 2점 차로 앞섰으나 후반 45분과 46분 연속골을 얻어맞아 5-5로 비긴 뒤 연장전에서 카림 벤제마에게 페널티킥 골을 맞아 눈물을 흘려야 했다. 하지만 이번 압승으로 징크스를 확실하게 털어냈다.

맨시티는 EPL 선두를 달리고 있고 잉글랜드축구협회(FA)컵 결승(다음달 3일)에도 올라가 있어 트레블(3관왕) 달성에 한 발 다가섰다. 유럽 프로축구 클럽대항전을 제패하려는 구단주 만수르의 '꿈'을 이룰 절호의 찬스다.

EPL 구단이 트레블을 이룬 것은 지금까지 딱 한 번 있었다. 알렉스 퍼거슨 감독이 이끌던 1998~1999시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맨유)가 처음이자 마지막이다.

통산 15번째 UCL 우승 도전을 멈춘 레알 마드리드는 올 시즌 코파 델 레이(국왕컵) 우승 트로피를 하나 수집하는 데 그쳤다. 라리가에서는 FC바르셀로나가 우승을 확정한 상태다.

이날 맨시티는 전반전 완벽한 경기력으로 레알 마드리드를 압도했다. 전반 23분 케빈 더브라위너의 침투 패스를 골 지역 오른쪽의 실바가 가까운 쪽 골대를 겨냥한 강한 슈팅으로 연결해 선제 결승골을 뽑았다. 13분 뒤에도 실바가 골 맛을 봤다. 일카이 귄도안의 슈팅이 수비수를 맞고 튀어 오르자 실바가 재차 헤더를 시도해 2-0을 만들었다.

후반 36분에는 더 브라위너의 프리킥 크로스에 이은 마누엘 아칸지의 헤더가 레알 마드리드 밀리탕의 몸을 맞고 굴절돼 골문으로 들어갔다. 이는 공식적으로 아칸지의 골로 기록됐다. 맨시티는 후반 46분 필 포든의 침투 패스에 이은 훌리안 알바레스의 쐐기골로 결승행을 자축했다.

과르디올라 감독은 경기가 끝난 뒤 "지난해 역전패한 것은 너무도 고통스러운 경험이었다. 독약을 삼킨 기분이었다"며 "(트레블에) 더 가까워졌다. 즐거움과 기쁨이 반복되는 시즌이다. 우리를 지켜보는 전 세계의 팬들도 행복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박병헌 기자 bhpark@skyedaily.com

여자축구, 파리올림픽 본선 北·中과 '죽음의 조'

4번 포트 北에 절대 열세… 2차 예선은 중국서

첫 올림픽 본선 진출에 도전하는 한국 여자축구 대표팀이 북한, 중국과 같은 조에 편성됐다. '죽음의 조'라고 할 만하다.

콜린 벨(잉글랜드) 감독이 이끄는 한국 대표팀은 18일 아시아축구연맹(AFC)이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의 AFC 하우스에서 진행한 2024 파리올림픽 아시아 2차 예선 조 추첨에서 북한, 중국, 태국과 B조에 편성됐다.

2차 예선은 올해 10월23일부터 11월1일까지 중국에서 진행된다. 12개국이 3개 조로 나눠 조별리그를 벌인다. 세부적인 경기 날짜와 장소는 정해지지 않았다.

2번 포트에 속해 1번 포트의 일본, 중국, 호주 중 한 팀과는 한 조로 묶일 수밖에 없던 한국으로서는 가급적 4번 포트의 북한을 피해야 했다. 하지만 행운은 비껴갔다.

북한은 최근 국제대회에 나서거나 평가전을 치르지 않아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이 없지만 엄연히 아시아의 강호로 손꼽힌다. 한국은 북한과 상대 전적에서 1승 3무 15패의 절대 열세를 보인다.

2005년 8월 동아시아축구연맹(EAFF)컵(동아시안컵)에서 1-0으로 이긴 게 북한을 상대로 거둔 유일한 승리다. 한국은 이후 북한에 12경기(2무 10패) 무승을 기록 중이다. 가장 최근 맞대결은 2017년 7월 일본에서 열린 동아시안컵에서 이뤄졌으며 북한이 1-0으로 이겼다.

중국도 넘기 힘든 상대다. 중국은 FIFA 랭킹에서 13위로 한국(17위)보다 4계단 높을 뿐이지만 통산 전적에서는 한국에 29승 8무 4패로 확실한 우위를 보인다. 2차 예선 B조 경기가 중국에서 치러지는 점도 한국에 불리한 요소다.

한국이 중국에 승리한 것은 2015년 8월 중국 우한에서 열린 동아시안컵(1-0 승)이 마지막이다. 한국은 이후 중국에 9경기(3무 6패) 무승을 기록 중이다.

한국은 3번 포트 배정에서마저도 운이 따르지 않았다. 태국(44위)은 3번 포트 3개국(필리핀 49위·우즈베키스탄 50위) 중 FIFA 랭킹이 가장 높은 팀이다. 태국과 역대 전적에서 최근 4연승을 포함해 7승 1무 2패로 앞서는 점은 다행이다.

호주, 대만, 필리핀, 이란이 속한 A조는 호주에서, 일본,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인도가 경쟁하는 C조는 우즈베키스탄에서 경기를 치른다.

2차 예선의 각 조 1위와 조 2위 국가 가운데 가장 성적이 좋은 한 팀이 최종예선에 올라간다.

2024년 2월24일과 28일로 예정된 최종예선에서는 4개 나라가 2개국씩 분류돼 홈 앤드 어웨이 경기로 2장의 올림픽 본선행 티켓 주인을 정한다. 한국 여자축구는 아직 올림픽 본선에 나간 적이 없다.

2020년 도쿄올림픽 최종예선에서는 중국과 홈 앤드 어웨이 경기를 치렀고, 홈 1차전 1-2 패배 이후 원정 2차전에서 2-0 리드를 지키지 못하고 연장전 끝에 2-2로 비겨 본선 진출에 실패했다.

김명준 기자 mjkim@skyedaily.com

테니스 1위 조코비치 초신성 루네에 패배

남자 프로테니스(ATP) 세계랭킹 1위인 노바크 조코비치(세르비아)가 덴마크의 '샛별' 홀게르 루네(7위)에게 2연패 하며 BNL 이탈리아 인터내셔널(총상금 770만5780 유로·약 111억 원) 8강에서 탈락했다.

조코비치는 18일(한국시간)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린 대회 남자 단식 8강전에서 루네와 2시간 19분 승부 끝에 1-2(2-6, 6-4, 2-6)로 졌다. 이로써 조코비치는 이 대회 2년 연속이자 통산 7번째 우승 도전을 일찍 멈췄다.

조코비치는 올 초 호주 애들레이드 대회와 호주오픈에서 잇따라 정상에 선 뒤로는 4개월 동안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리지 못하고 있다. 조코비치는 다음주 발표되는 세계랭킹에서 카를로스 알카라스(2위·스페인)에게 1위 자리를 내주게 됐다. 알카라스는 이번 대회에서 32강전 탈락했다. 작년 11월 파리 마스터스 결승에서 조코비치를 제압하고 우승했던 루네는 6개월 만에 조코비치 상대 연승을 기록하며 이름값을 높였다. 루네는 조코비치와 상대 전적에서 2승 1패로 앞서나갔다.

루네는 프란치스코 세룬돌로(31위·아르헨티나)를 2-0(7-6〈7-5〉 6-4)으로 제압하고 준결승에 오른 카스페르 루드(4위·노르웨이)와 결승 진출을 다툰다.

2003년생으로 만 20세인 루네는 188㎝의 큰 키에서 나오는 강한 서브와 공격적인 리턴이 빼어나다. 빠른 발을 앞세운 수비에도 강점이 있는데, 이게 조코비치를 상대로 빛을 발했다. 빠른 코트 커버로 상대의 결정구를 여러 차례 무위로 돌려 노장을 지치게 했다.

조코비치는 알카라스에게 1위 자리를 내주는 것에 대해서는 "새로운 세대가 이미 이 자리에 와 있다. 1위가 될 알카라스는 대단한 테니스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병헌 기자 bhpark@skyedaily.com

덴마크의 '샛별' 홀게르 루네의 스트로크 모습. AFP=연합뉴스